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영향요인

변수용¹⁾ · 김경근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생 및 학교 특성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교육비 지출은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특히 4년제 대학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 특성 중에서는 학업성취 및 희망교육수준이 높으면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반면, 재학 중 징계 및 아르바이트 경험은 대학 진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문계고 입학이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으로 인식하거나 성적 때문에 전문계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전문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졸업 직후 취업하지 못한 전문계고 졸업생들 역시 취업한 졸업생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배경과 학생 특성을 통제했을 때 학교 특성은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 가정배경

I. 서론

전문계 고등학교(이하 전문계고)의 고유 기능은 전문 기술인 배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계고의 취업률은 크게 떨어진 반면, 대학 진학률은 일반계고의 턱밑까지 근접해 있다. 2011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10년 전문계 고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19.2%로 2001년의 54.7%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반면,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1년 40.8%에서 2010년 71.1%로 급등했다. 2003년에 처음으로 진학률(52.7%)이 취업률(44.4%)을 앞지른 뒤 이런 경향은 계속됐다(세계일보, 2011.5.10).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는 전문계고가 중국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후기의 직업교육과 동시에 대입 준비 단계의 성격을 띤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이 자

1)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t University Park

2) 고려대학교

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안선영·이경상, 2009).

이처럼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배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경기 침체에 따른 취업난의 심화가 고졸자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고학력 실업이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졸자가 고졸자를 대체하는 현상마저 벌어지면서 노동시장에서 고졸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측면이 있다. 실령 취업이 되더라도 고졸자와 대졸자 간 임금 격차가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고졸자들이 선뜻 취업을 선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고졸 청년층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지난 2007년에 대졸 청년층의 임금은 141이었으나 2011년에는 150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1.7.22). 마지막으로 전문계고 대입 특별전형의 확대도 전문계고 졸업생에 대한 대학 문턱을 낮추어 취업률 하락과 진학률 상승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전문계고 특별전형은 전문계고 학생에게 대학 문호를 개방하여 대학에서 다양한 특기를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사회 전반에 학력주의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이 제도는 이내 대학에 쉽게 입학하는 통로로 변질됐다. 대학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전문계고 졸업생이 대학으로 발길을 돌리자 이를 신입생 유치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로 인해 전문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기술을 습득이 아니라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두보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에 전국 전문계고 학생 6,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4.7%(1,582명)가 전문계고 입학 이유로 ‘대학 진학이 유리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 32.2%(2,063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한국일보, 2011.7.14).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다. 그리고 과도하게 높은 대학 진학률은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로 만들고 있다. 대학 진학률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학력인플레이로 높아진 구직자의 눈높이도 청년층 취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손민중 외, 2010).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전문계고에서도 절대 다수가 대학 진학을 피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사교육까지 받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든 타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지만, 뚜렷한 진로의식이 결여된 채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통로로 전문계고를 이용하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사용한 몇몇 연구들(채창균, 2006; 최동선 2008)이 눈에 띄는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의 상황만을 다루고 있어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일정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고용패널 1~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한 김안국·신동준(2010)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적지 않은 수가 노동시장을 거쳐 다시 대학으로 이동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채창균(2006)과 최동선(2008)의 연구는 전문계고 졸업생들

의 대학 진학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대학 진학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적 차별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로 및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여부와 더불어 진학한 대학 유형(i.e., 2년제 vs. 4년제)에 따라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인적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문계고 학생의 배경적 특성

가. 전문계고 학생의 가정배경 및 심리적 특성

(1) 가정배경

일반적으로 전문계고 학생은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가정배경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장상수(2007)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가 일반계 고교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버지의 직업지위보다는 아버지의 학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방하남·김기현(2003)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정 내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실업계 고교 대비 일반계 고교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김성식·류방란(2008) 역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부모로부터 교육적 지원을 많이 받는 학생들은 전문계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다고 제시하였다. 윤형한·이지연·김나라(2005)도 전문계고 학생은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고, 부모관계 및 부모의 지지가 약하며, 전반적인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배상훈·김효선·김국군(2011)도 전문계고 학생은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고 부모와의 관계도 덜 원만함을 보고하였다.

(2) 개인의 심리적 특성

전문계고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전문계고 학생이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강경중, 2008; 김택호·박제일·박영진, 2008; 양명희, 2005; Yonezawa, Well & Serna, 2002). 먼저 강경중(2008)은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 몰입이 상당히 낮는데, 이것이 중학교 시절부터 누적된 학

습 실패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양명희(2005)에 따르면,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전문계고 학생은 자기조절학습 수준과 자아개념이 낮았다. 특히 전문계고 학생은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로 구성된 자기조절학습의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인지조절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며,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단순한 인지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문과 교과목에 대한 자아개념은 일반계고 학생이 높은 반면, 정서 및 신체적 자아개념은 전문계고 학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간에 목도되는 학업특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안선영·이경상(2009)은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전문계고 학생은 교육포부와 생활만족도가 낮으며, 전문계고 학생 중에서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서적 특성이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전문계고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고찰한 일부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김택호·박제일·박영진(2008)은 일반계고 학생이 전문계고 학생보다 창의적 인성검사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학업에 대한 가치와 성취감에서는 전문계고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보다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 전문계고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목표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나. 학업성취 및 진로 특성

(1) 학업성취

국내외에서 수행된 대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문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보다는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은 일반계고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김현주·이병훈, 2006; 박동열·정철영·김진구·허영준·김강호, 2010; 서인석, 2011; Gamoran & Berends, 1987; Vanfoson, Jones & Spade, 1987). 기실 한국사회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정배경을 지닌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일반계고 학생보다 낮은 것은 별로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분석한 서인석(2011)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가정배경은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성취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전문계고에는 가정배경은 좋지만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상당수 재학하고 있는데, 이들의 문제행동을 가정이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서인석(2011)은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성취에는 교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교육은 거의 변수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성취는 교사의 노력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태도가 나아지고 문제행동이 개선될 때 향상의 계기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 학생의 기초학력수준을 비교한 박동열 외(2010)에 따르면, 전문계고 학생의 중학교 성적은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고등학교 입학 이후 기

초학습능력은 일반계고 학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반계고 학생의 학업성취에는 주로 중학교 내신성적을 비롯한 학생의 학습특성과 가정의 교육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성취는 학생의 학습특성 및 가정의 교육환경보다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문계고 학생의 경우 중학교 시절의 학습실패 경험으로 인한 기초학습능력 부진이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에 의해 일정 정도 극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진로결정 및 진로성숙도

상술한 전문계고 학생의 가정배경과 심리적 특성, 학업성취 수준 등은 이들의 진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한편으로는 전문계고 학생의 가정배경과 개인적 특성이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열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진로결정 수준 역시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계고의 특성상 일반계고 학생과 비교하여 전문계고 학생은 진로를 보다 빨리 결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실제로 일부 선행연구는 전문계고 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현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2010)에 따르면, 비록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문계고 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일반계고 학생보다 더 높았는데, 이처럼 양자 간 차이가 극히 미미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 진학을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비록 전문계고 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진로탐색이나 적성인지 여부, 직업포부수준 및 진로에 대한 확신, 진로성숙도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계고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영미·유순화·윤경미, 2009; 고재성, 2010; 기영락·임성택, 2010; 나승일·마상진, 2005; 윤형한·이지연·김나라, 2005; 이은아, 2008). 윤형한·이지연·김나라(2005)는 전문계고 학생에 비해 일반계고 학생은 진로개발이 유의미하게 높고, 자기이해, 진로정보, 직업정보, 진로결정효능감, 구직효능감과 같은 특성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나승일·마상진(2005)도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전문계고 학생의 적성인지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배상훈 외(2011)에 따르면, 비록 일반계고 학생과 전문계고 학생 모두 중학교 때의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은 일반계고 학생이 전문계고 학생에 비해 높았다.

한편 고등학생의 계열별 진로성숙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성경, 2008; 이은아, 2007). 구체적으로, 김성경(2008)은 일반계고 남학생의 진로성숙도에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문계고 남학생의 진로성숙도에는 개인 특성보다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 진로준비활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은아(2007)에 따르면, 전문계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에는 자아개념과 학생 본인의 교육포부 수준, 부모 애착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계고 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의 교육포부

수준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행연구 검토

고등교육기회 획득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일반계고 학생들과 대비한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경근·변수용, 2006; 김기현·방하남, 2005; 김성식, 2006). 이러한 연구들은 다른 배경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전문계고 학생들은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일반계고 출신과 전문계고 출신 사이에는 대학 진학의 내용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김경근·변수용, 2006; 김기현·방하남, 2005; 김성식, 2006). 구체적으로, 채창균(2006)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2차년 자료를 사용하여 전문계고 출신 가운데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약 64%에 이르지만, 이들 가운데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약 20% 정도이고, 특히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1.7% 불과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전문대학 또는 지방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대학 진학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³⁾

한편 전문계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사용한 몇몇의 연구들(채창균, 2006; 최동선, 2008)만이 눈에 띄는 것이다. 이들 선행연구는 대학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배경과 개인적인 특성을 지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창균(2006)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가 친부모일 경우, 그리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일 경우 취업보다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의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보다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창균, 2006). 최동선(2008)은 사교육 경험과 진로와 관련한 가정 내 대화도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요컨대,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아실현의 의지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반계고 학생과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 진학 양상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대학 진학 과정에서 전문계고 학생은 적지 않은 교육적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전문계고 졸업생들은 일반계고 졸업생에 비해 대학 진학 과정에서 수시전형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대, 2009). 전문계고 3학년 학생들의 입시 경험을 고찰한 김영희·김성봉(2011)에 따르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수능시험'인 바,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시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계획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은 수시전형에 포함된 '수능 최저학력 등급제'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반계 및 특목고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정시전형을 피하기 위해 4년제 대학보다는 2-3년제 대학으로 하향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는 층화 집락 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통해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표성 있게 각각 2,000명씩 추출하여 장기간 추적·조사함으로써, 청년층의 교육 경험과 직업세계로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2004년에 처음 착수되었다. 2005~2010년도에 실시된 2~7차 조사는 2004년에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00명, 그리고 이 학생들의 학부모 6,000명을 추적·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7차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계 고3 코호트(cohort) 가운데 고등교육기관 진학 여부의 파악이 가능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수용·김경근(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선 2~7차년도 조사에서 졸업 후 진학한 대학의 명칭을 단 한번이라도 제공한 학생들을 추출하였는데, 이는 2~7차년도 조사 기간에 발생한 유효 표본수의 감소로 인한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⁴⁾ 다음으로 진학한 대학이 여러 곳으로 나타난 학생의 경우 가장 최근에 진학 혹은 재학 중인 대학의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김안국·신동준, 2010)가 밝힌 노동시장에서 다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학한 대학의 이름을 제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미진학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조사에서 탈락하여 7차년까지 대학 진학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학생의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표 1>은 전문계고 3학년(2004) 코호트의 졸업 후 2010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진학 현황이다. 일반계고 3학년 코호트와의 비교를 위해 변수용·김경근(2010)의 분석결과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대학 진학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 전문계고 3학년 코호트 2000명 가운데, 약 64%가 졸업 후 6년 동안 적어도 한 대학 이상의 국내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⁵⁾ 이 가운데 2년제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각각 43.7%와 19.9%로 일반계고 3학년 코호트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20.2%와 65.5%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

4)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전문계고 3학년 코호트의 표본수(2000명)는 2차(2005)년도 조사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7차년도(2010)에는 1,141명에 대해서만 성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5)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2009년 일반계고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인 약 74%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이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9). 그러나 조사 불능 등의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표본수 1,570명 중에서는 약 82%가 2년제 이상의 국내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는 2005년 졸업 후에도 고등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진학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부표 1> 참조). 한편 진학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조사 불능을 포함한 나머지 졸업생들 가운데 일정 수가 대학에 진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문계고 3학년 코호트들의 실제 대학 진학률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편 본 연구에서는 외국 대학 혹은 미분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과 결측치를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에는 대학 진학 여부가 파악된 1,554명의 학생이 포함되었다.

〈표 1〉 한국교육고용패널 고3 코호트(2004)의 졸업 후 진학 결과: 계열별

진학 경로	세부 진학 경로	고교 계열			
		전문계1)		일반계2)	
		N	%	N	%
미진학 (또는 취업)		286	14.3	54	2.7
2년제 대학 진학		874	43.7	403	20.2
4년제 대학 진학3)	1-10위권 대학	2	0.1	92	4.6
	11-20위권 대학	9	0.5	105	5.3
	21-30위권 대학	13	0.7	117	5.9
	31-40위권 대학	32	1.6	119	6.0
	40위권밖 대학	338	16.9	873	43.7
	(소계)	(394)	(19.9)	(1,306)	(65.5)
외국 대학 혹은 미분류 대학 진학4)		16	0.8	4	0.2
결측치(조사 불능 등)4)		430	21.5	233	11.7
계		2,000	100.0	2,000	100.0

주1) 전문계고 3학년 코호트의 졸업 후 진학 결과는 2010년 현재이며, 한국교육고용패널 2005~10년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함.

주2) 일반계고 3학년 코호트의 졸업 후 진학 결과는 2008년 현재이며, 한국교육고용패널 2005~08년도 자료를 사용한 변수용·김경근(2010) 연구 결과(〈표 1〉)를 토대로 산출함.

주3) 4년제 대학 순위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2004~09년 자료에 근거한 것임. 자세한 사항 변수용·김경근(2010) 참조.

주4) 외국 대학 혹은 미분류 대학 진학과 조사 불능 등으로 인한 결측치 사례(N=446)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

2. 변수측정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기 위해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종속변수

고등교육기관 진학 여부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자기 보고(self-report)에 의해 측정되었다. 전문계고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행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2년제 대학 이상에 진학 하면 1, 진학하지 않으면 0을 부여하여, 대학 진학 확률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진학에서의 질적 차별화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미진학(혹은 취업)에는 1, 2년제 대학 진학은 2, 4년제 대학 진학에는 3을 각각 부여하여 선택 확률을 종속변수로 삼았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1)가정배경, (2)학생 특성, (3)학교 특성으로 나누어 포함하였다. 구체적으

로, 먼저 학생의 가정배경을 나타내는 변수로 (1)부모의 교육수준, (2)가계소득, (3)사교육비, (4)가족구조, (5)자녀수, (6)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본래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석사, 박사로 조사되었던 것을, (1)중졸 이하(준거 집단), (2)고졸, (3)2년제 대졸, (4)4년제 대졸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양친가족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중 더 높은 값을 사용하였고,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학력을 사용하였다. 가계소득은 월평균 총 가계소득을 자연로그(natural log)값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은 1차년(2004) 조사 당시 고3 학생이 직전 학기(2003년 9월~2004년 2월)동안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로 측정되었으며, 가계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가족구조는 부모의 혼인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이혼, 별거, 사별인 상태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0), 유배우 상태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친가족(=1)으로 하여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자녀수는 학생 본인을 제외한 전체 형제 및 자매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은 본래 고졸,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석사, 박사로 조사되었던 것을 (1)고졸(준거 집단), (2)2년제 대졸, (3)4년제 대졸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의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1)성별, (2)공부시간, (3)학업성취도, (4)희망교육수준, (5)고교 재학 중 징계 경험, (6)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횟수, (7)전문계고 진학이유, (8)졸업 직후 일자리 경험 여부가 포함되었다. 학생의 성별은 더미변인으로 남자이면 0, 여자이면 1이 부여되었다. 공부시간은 고3 당시 학교나 학원, 과외를 제외하고 일주일 동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1=3시간미만, 2=3~5시간, 3=5~10시간, 4=10~15시간, 5=15~20시간, 6=20~25시간, 7=25~30시간, 8=30시간 이상으로 측정된 문항을 연속변수로 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교사가 보고한 고3 당시의 내신 석차를 역수를 취해 사용하였다.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은 부모의 기대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본래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로 조사되었던 것을 (1)고졸(준거 집단), (2)2년제 대학, (3)4년제 대학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재학 중 징계 경험 여부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 아르바이트는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총 횟수를 0=없다, 1=1회, 2=2회, 3=3회, 4=4회, 5=5회 이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전문계고 진학 이유는 1차년 학생 설문지에서 “귀하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①진학보다 취업을 더 선호해서, ②내가 원하던 분야이므로, ③가정 형편 때문에, ④성적 때문에, ⑤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⑥부모님의 권유로 ⑦선생님의 권유로 응답한 것으로 (1)진학보다 취업을 더 선호해서(준거 집단), (2)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3)성적 때문에, (4)부모님 혹은 선생님의 권유 등 기타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졸업 직후 일자리 경험 여부는 2차년의 취업자, 비진학자 설문지에서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을 경우에는 1,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을 경우에는 0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1)설립유형, (2)학교유형, (3)학교계열, 그리고 (4)학교 소재지를 포함시켰다. 설립유형은 국·공립학교(=0) 대비 사립학교(=1)를 의미한다. 학

교유형은 (1)남학교, (2)여학교, (3)남녀공학(준거집단)으로 측정되었다. 학교계열은 (1)공업고, (2)상업고, (3)기타계열(준거 집단)로 측정되었다. 학교 소재지는 (1)서울/광역시, (2)시구군, (3)읍지역, (4)면지역(준거 집단)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독립변수들에 투입된 정보는 1차년(2004) 자료에서 얻었다.

<표 2>는 전술한 독립변수들의 기초통계를 대학 진학 유형별로 제시한 것이다. 대학 진학 유형에 따른 가정배경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구분된 전문계고 졸업생은 2년제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제 대학에 진학한 전문계고 졸업생들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를 들면,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들 가운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졸 이상인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전문계고 졸업생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10% 및 15%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이나 사교육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목도되었다. 가계소득의 경우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의 고3 당시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134($\exp[4.90]=134.3$)만 원이었던 반면,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각각 193만원과 219만원이었다. 가족구조와 관련해서는,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 가운데 양친가족의 비율은 67%로,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에서 얻어진 비율인 81%에 비해 크게 낮았다. 반면,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고3 당시 형제자매수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의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3 당시 전문계고 학생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또한 대학 진학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의 경우 고3 당시 부모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기를 원했던 비율은 36%에 그친 반면,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53% 및 85%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대학 진학 유형별 학생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은 58%로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 가운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43% 및 36%에 비해 크게 높았다. 공부시간과 학업성취 경우 2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미진학 또는 취업으로 분류된 졸업생에 비해, 그리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2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 우위에 있었다.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졸업생들 가운데 고3 당시 4년제 대학 이상을 희망한 비율은 23%에 그쳤지만,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39% 및 8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고등학교 재학 중 징계 경험과 아르바이트의 횟수는 미진학 혹은 취업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일례로,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 가운데 징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로, 2년제 및 4년제에 진학한 졸업생의 징계 경험 비율 15% 및 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계고 진학 이유와 관련해서는,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 가운데 진학보다 취업을 더 선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5%로, 2년제 및 4년제에 진학한 졸업생의 응답 비율 11%와 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2년제 및 4년제에 진학한 전문계고 졸업생들 가운데 전문계고 진학 이유가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와 22%로,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의 응답 비율 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2년제 및 4년제에 진학한 전문계고 졸업생들 가운데 전문계고 진학 이유가 성적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각각 49%와 46%로,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의 응답 비율 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취업한 비율은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전문계고 졸업생이 61%로, 2년제 및 4년제에 진학한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비율 9%와 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학 유형별로 학교 특성의 차이를 개괄하도록 하겠다. 먼저 설립유형의 경우 고3 당시 사립고에 다녔던 비율은 2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이 54%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과 미진학 혹은 취업한 졸업생의 비율은 각각 50% 및 45%로 그 뒤를 따랐다. 학교유형의 경우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이 고3 당시 남학교에 다녔던 비율 17%는 미진학 혹은 취업한 졸업생 가운데 남학교에 다닌 비율 9%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 가운데 여학교에 다녔던 비율은 21%로 미진학 혹은 취업한 졸업생 중 여학교에서 수학했던 비율 40%보다 크게 낮았다. 학교계열과 관련해서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 가운데 고3 당시 상업계열 학교에 다녔던 비율은 47%로 미진학 혹은 취업한 졸업생 가운데 상업계열 출신이 점유한 비율인 32%보다 높았다. 학교소재지와 관련해서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 가운데 고3 당시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다녔던 비율은 43%로 미진학 혹은 취업한 졸업생 가운데 해당 지역 출신 비율인 30%보다 높았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학 경로를 미진학 또는 취업과 2-4년제 대학을 모두 포함한 대학 진학으로 이분화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질적 차별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1)미진학 또는 취업, (2)2년제 대학 진학, (3)4년제 대학 진학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한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결측치(<표 2> 참조)에 대해서는 multiple imputation을 통해 5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Rubin(1987)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추정치의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가 다층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집 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TATA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2〉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로에 따른 기술통계

설명변수	미진학 혹은 취업		대학 진학 유형						계		% imputed
	평균 혹은 비율	표준 오차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소계)		평균 혹은 비율	표준 오차	
			평균 혹은 비율	표준 오차	평균 혹은 비율	표준 오차	평균 혹은 비율	표준 오차			
가정배경											
부모 교육수준											1.9
중졸 이하	0.26	—	0.12	—	0.09	—	0.11	—	0.14	—	
고졸	0.29	—	0.25	—	0.20	—	0.23	—	0.24	—	
2년제 대졸	0.42	—	0.53	—	0.56	—	0.54	—	0.52	—	
4년제 대졸 이상	0.02	—	0.10	—	0.15	—	0.12	—	0.10	—	
월평균 가계소득 (log)	4.90	0.05	5.26	0.02	5.39	0.04	5.30	0.02	5.22	0.02	2.4
월평균 사교육비 (log)	1.09	0.09	1.71	0.05	2.09	0.08	1.83	0.05	1.69	0.04	2.0
양친가족	0.67	—	0.81	—	0.81	—	0.81	—	0.78	—	2.1
자녀수	1.48	0.06	1.29	0.03	1.23	0.04	1.27	0.02	1.31	0.02	1.9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고졸	0.16	—	0.03	—	0.02	—	0.03	—	0.05	—	
2년제 대졸	0.49	—	0.44	—	0.12	—	0.34	—	0.37	—	
4년제 대졸 이상	0.36	—	0.53	—	0.85	—	0.63	—	0.58	—	
학생 특성											
여학생	0.58	—	0.43	—	0.36	—	0.41	—	0.44	—	0.0
공부시간	1.43	0.06	1.47	0.04	1.62	0.06	1.51	0.03	1.50	0.03	0.0
학업성취(내신 석차)	46.49	1.97	54.29	0.98	61.98	1.39	56.68	0.78	54.80	0.76	23.1
희망교육수준											
고졸	0.24	—	0.03	—	0.01	—	0.03	—	0.06	—	
2년제 대졸	0.53	—	0.58	—	0.17	—	0.45	—	0.47	—	
4년제 대졸 이상	0.23	—	0.39	—	0.82	—	0.52	—	0.47	—	
고교 재학 중 징계 경험	0.18	—	0.15	—	0.10	—	0.13	—	0.14	—	0.0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빈도	2.16	0.12	1.50	0.06	1.18	0.08	1.40	0.05	1.54	0.05	0.0
전문계고 진학 이유											
진학보다 취업을 더 선호해서	0.35	—	0.11	—	0.06	—	0.09	—	0.14	—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0.08	—	0.19	—	0.22	—	0.20	—	0.18	—	
성적 때문에	0.34	—	0.49	—	0.46	—	0.48	—	0.45	—	
기타	0.23	—	0.21	—	0.26	—	0.23	—	0.23	—	
졸업 직후 취업	0.61	—	0.09	—	0.05	—	0.08	—	0.18	—	
학교 특성											
사립학교	0.43	—	0.54	—	0.50	—	0.53	—	0.51	—	0.0
학교유형											
남고	0.10	—	0.13	—	0.17	—	0.14	—	0.13	—	
여고	0.38	—	0.27	—	0.21	—	0.25	—	0.27	—	
공학	0.52	—	0.60	—	0.62	—	0.61	—	0.59	—	
학교계열											
공업고	0.22	—	0.20	—	0.20	—	0.20	—	0.21	—	
상업고	0.36	—	0.42	—	0.47	—	0.43	—	0.42	—	
기타	0.42	—	0.38	—	0.32	—	0.36	—	0.37	—	
학교소재지											
특별시/광역시	0.29	—	0.38	—	0.43	—	0.40	—	0.38	—	
중소도시	0.31	—	0.35	—	0.36	—	0.35	—	0.35	—	
읍지역	0.22	—	0.15	—	0.10	—	0.13	—	0.15	—	
면지역	0.17	—	0.12	—	0.11	—	0.12	—	0.13	—	
N	286		874		394		1,268		1,554		

IV. 연구결과 및 해석

여기에서는 먼저 전문계고 졸업 후 6년 내에 이루어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유형별로 진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구명하고자 한다.

1. 전문계고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3>은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로짓모형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고찰을 위해 분석은 학생의 가정배경 변수(모델1), 개인 특성 변수(모델2), 그리고 학교 특성 변수(모델3)를 추정모형에 차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학생의 가정배경 변수만을 투입한 모델1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구조 변수를 제외한 투입한 모든 가정배경 변수들이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2년제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를 둔 전문계고 졸업생이 졸업 후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종졸 이하 학력의 부모를 둔 졸업생에 비해 약 2배($\exp[.43]=1.5$)와 5배 정도 높았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고졸 이하 대비 2년제와 4년제 대졸 이상일 경우에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1에 투입된 가정배경 변수는 대학 진학 가능성 차이에 대해 약 12%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Pseudo R-squared 참조).

다음으로 모델1에 개인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2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모델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가정배경 변수들 가운데 가계소득, 자녀수,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은 더 이상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여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부모 교육수준과 사교육비는 여전히 통계적인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모델2에 새롭게 투입된 개인 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공부시간을 제외한 모든 투입 변수들이 대학 진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대학 진학 가능성이 낮았다. 학업성취와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징계 경험이 없고 아르바이트 빈도가 낮을수록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성적 때문에 전문계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진학보다 취업을 더 선호했던 학생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약 92%($\{1-\exp[-2.58]\} * 10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2에 투입된 학생 특성 변수들은 대학 진학 가능성의 차이에 대해 약 27%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Pseudo R-squared 참조).

〈표 3〉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영향요인

설명변수	Model1 (+가정배경)			Model2 (+학생특성)			Model3 (+학교특성)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가정배경									
부모 교육수준 (준거 범주: 중졸 이하)									
고졸	0.25		0.20	0.44		0.26	0.37		0.26
2년제 대졸	0.43	*	0.19	0.50	*	0.25	0.43		0.26
4년제 대졸 이상	1.52	**	0.48	1.74	**	0.56	1.66	**	0.56
월평균 가계소득 (log)	0.33	**	0.11	0.27		0.14	0.26		0.15
월평균 사교육비 (log)	0.14	**	0.05	0.15	*	0.06	0.15	*	0.06
양친가족	0.23		0.17	0.16		0.23	0.19		0.24
자녀수	-0.19	**	0.07	0.02		0.08	0.03		0.09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준거 범주: 고졸)									
2년제 대졸	0.89	**	0.29	0.37		0.35	0.37		0.36
4년제 대졸 이상	1.58	***	0.30	0.59		0.38	0.63		0.38
학생 특성									
여학생				-0.52	*	0.22	-0.35		0.28
공부시간				0.00		0.08	-0.01		0.09
학업성취(내신 석차)				0.01	*	0.00	0.01	*	0.00
희망교육수준 (준거 범주: 고졸)									
2년제 대졸				1.72	***	0.30	1.77	***	0.30
4년제 대졸 이상				2.11	***	0.31	2.13	***	0.32
고교 재학 중 징계 경험				-0.51	*	0.21	-0.53	**	0.20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빈도				-0.11	*	0.05	-0.11	*	0.05
전문계고 진학 이유(준거 범주: 취업 선호)									
대학 진학에 유리				0.88	*	0.37	0.84	*	0.37
성적 때문에				0.72	**	0.21	0.73	**	0.21
기타				0.28		0.24	0.27		0.25
졸업 직후 취업				-2.58	***	0.23	-2.62	***	0.22
학교 특성									
사립학교							0.37		0.18
학교유형 (준거 범주: 남녀 공학)									
남고							0.22		0.38
여고							-0.17		0.27
학교계열 (준거 범주: 기타)									
공업고							0.07		0.25
상업고							0.02		0.27
학교소재지 (준거 범주: 면지역)									
특별시/광역시							0.13		0.30
중소도시							0.06		0.31
읍지역							0.15		0.34
(상수)	-1.85	**	0.58	-2.55	**	0.76	-2.83	**	0.84
N	1554			1554			1554		
Log L ^a	-655.35			-451.58			-448.62		
Pseudo R-Squared ^a	0.12			0.39			0.40		

a. Log L과 Pseudo R-Squared 값은 다섯 개의 imputed dataset 가운데 첫 번째 dataset에서 구한 값임.

*p<.05, **p<.01, ***p<.001 (two-tailed tests)

마지막으로, 모델2에 학교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3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배경과 학생 특성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모델2와 비교했을 때 학생의 성별을 제외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모의 교육수준, 사교육비 지출, 학업성취, 희망교육수준, 고등학교 재학 중 징계 경험 및 아르바이트 빈도, 전문계고 진학 이유, 그리고 졸업 직후 취업 여부는 학교 특성 변수를 통제된 이후에도 대학 진학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투입된 학교 특성 변수들은 다른 가정배경 및 학생 특성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가능성의 차이를 1%정도만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Pseudo R-squared 참조).

2. 진학 대학 유형 영향요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4>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진학한 대학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다항 로짓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분석은 학생의 가정배경 변수(모델1), 개인 특성 변수(모델2), 그리고 학교 특성 변수(모델3)를 추정모형에 차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의 가정배경 변수만을 투입한 모델1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졸업생을 준거 집단으로 하였을 때 가족구조 변수를 제외한 모든 가정배경 변수들은 2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2년제 대졸 이상일 때,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2년제 대졸 이상일 경우에 미진학 또는 취업보다는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미진학 또는 취업 대비 4년제 대학 진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2년제 대졸 이상일 때,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4년제 대졸 이상일 경우에 미진학으로 남거나 취업하기보다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년제 대학 진학 대비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가정배경 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만일 자신의 자녀가 졸업 후에 2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것을 기대했었다면 자녀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기를 바랐던 경우보다도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1에 투입된 가정배경 변수는 대학 진학 유형의 차이에 대해 약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Pseudo R-squared 참조).

다음으로 모델1에 학생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2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졸업생을 준거 집단으로 하였을 때, 모델1에서 2년제 대학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계소득, 자녀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예측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제 대졸 이상의 부모 교육수준과 사교육비는 여전히 2년제 대학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새롭게 투입한 학생 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공부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2년제 대학 진학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미진학으로 남거나 취업하기보다는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리고 학업성취와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교 재학 당시 징계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적을수록, 전문계고 진학 이유가 취업 선호보다는 대학 진학에 유리하거나 성적 때문이면, 졸업 직후에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미진학 또는 취업보다는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진학 혹은 취업으로 분류된 졸업생과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과의 비교에서는 2년제 대졸 이상의 부모 교육수준과 사교육비 지출이 두 집단을 차별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생 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성별, 학업성취, 희망교육수준, 고교 재학 중의 징계 경험, 그리고 졸업 직후 취업 여부가 4년제 대학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변수들의 영향력은 2년제 대학 진학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미진학으로 남거나 또는 취업하기보다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약 37% 낮았지만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약 5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교육수준이 고졸이었던 학생에 비해 4년제 대졸인 학생이 미진학으로 남거나 취업하기보다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약 6배 정도 높지만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무려 28배나 높았다.

한편 2년제 대학 진학자를 준거 집단으로 하였을 때, 4년제 대학 진학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2년제 대졸 수준의 기대교육, 성별, 그리고 4년제 대학 이상의 본인 희망교육수준뿐이었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2년제 대학 진학이고 여학생이면 졸업 후에 2년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 4년제 대졸의 희망교육수준을 학생이 갖고 있었다면 2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2에 투입된 학생 특성 변수들은 대학 진학 유형의 차이와 관련하여 13%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Pseudo R-squared 참조).

마지막으로, 학교 특성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3의 결과는 모델2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델2에서 2년제 대학 진학 집단과 4년제 대학 진학 집단을 구별 짓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학생의 성별이 학교 특성 변수를 통제했을 때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추가로 투입한 학교 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설립유형만이 미진학 혹은 취업 집단과 2년제 대학 진학 집단을 구별 짓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공립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 후에 미진학으로 남거나 혹은 취업하기보다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 투입된 학교 특성 변수들은 가정배경 및 학생 특성변수들에 더하여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진학한 대학 유형의 차이를 약 1%밖에 설명하지 못했다(<표 4> Pseudo R-squared 참조).

〈표 4〉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 대학 유형 영향요인

설명변수	Model 1 (+ 가정배경)					
	준거집단 = 미진학 혹은 취업				준거집단 = 2년제 대학 진학	
	2년제 대학 진학		4년제 대학 진학		4년제 대학 진학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가정배경						
부모 교육수준 (준거 범주: 중졸 이하)						
고졸	0.26	0.20	0.22	0.27	-0.03	0.22
2년제 대졸	0.41	*	0.19	0.52	*	0.24
4년제 대졸 이상	1.48	**	0.49	1.64	**	0.51
월평균 가계소득 (log)	0.31	**	0.11	0.39	**	0.15
월평균 사교육비 (log)	0.12	*	0.05	0.20	**	0.07
양친가족	0.27		0.19	0.09		0.21
자녀수	-0.18	*	0.07	-0.22	*	0.10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준거 범주: 고졸)						
2년제 대졸	1.05	***	0.30	0.07		0.42
4년제 대졸 이상	1.35	***	0.31	2.07	***	0.43
학생 특성						
여학생						
공부시간						
학업성취(내신 석차)						
희망교육수준 (준거 범주: 고졸)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이상						
고교 재학 중 징계 경험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빈도						
전문계고 진학 이유(준거 범주: 취업 선호)						
대학 진학에 유리						
성적 때문에						
기타						
졸업 직후 취업						
학교 특성						
사립학교						
학교유형 (준거 범주: 남녀 공학)						
남고						
여고						
학교계열 (준거 범주: 기타)						
공업고						
상업고						
학교소재지 (준거 범주: 면지역)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읍지역						
(상수)	-2.02	**	0.58	-3.55	***	0.82
N						1554
Log L ^a						-1368.63
Pseudo R-Squared ^a						0.10

a. Log L과 Pseudo R-Squared 값은 다섯 개의 imputed dataset 가운데 첫 번째 dataset에서 구한 값임.

*p<.05, **p<.01, ***p<.001 (two-tailed tests)

〈표 4〉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 대학 유형 영향요인

(계속)

설명변수	Model 2 (+ 학생특성)								
	준거집단 = 미진학 혹은 취업				준거집단 = 2년제 대학 진학				
	2년제 대학 진학		4년제 대학 진학		4년제 대학 진학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가정배경									
부모 교육수준 (준거 범주: 중졸 이하)									
고졸	0.42	0.26	0.50	0.33	0.08	0.24			
2년제 대졸	0.46	0.25	0.66	*	0.33	0.21			
4년제 대졸 이상	1.72	**	0.57	1.85	**	0.61	0.13	0.29	
월평균 가계소득 (log)	0.26	0.14	0.32	0.18	0.06	0.13			
월평균 사교육비 (log)	0.13	*	0.06	0.20	**	0.08	0.08	0.05	
양친가족	0.19	0.24	0.09	0.27	-0.10	0.19			
자녀수	0.01	0.08	0.05	0.11	0.04	0.09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준거 범주: 고졸)									
2년제 대졸	0.51	0.36	-0.47	0.47	-0.98	*	0.40		
4년제 대졸 이상	0.53	0.38	0.74	0.50	0.21	0.41			
학생 특성									
여학생	-0.46	*	0.22	-0.79	**	0.26	-0.33	*	0.16
공부시간	0.00	0.09	-0.01	0.10	-0.01	0.06			
학업성취(내신 석차)	0.01	*	0.00	0.01	**	0.00	0.00	0.00	
희망교육수준 (준거 범주: 고졸)									
2년제 대졸	1.72	***	0.30	1.65	**	0.60	-0.07	0.57	
4년제 대졸 이상	1.74	***	0.33	3.33	***	0.57	1.59	**	0.59
고교 재학 중 징계 경험	-0.45	*	0.21	-0.91	**	0.31	-0.46	0.26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빈도	-0.11	*	0.05	-0.12	0.07	-0.01	0.05		
전문계고 진학 이유(준거 범주: 취업 선호)									
대학 진학에 유리	0.89	*	0.37	0.66	0.49	-0.22	0.32		
성적 때문에	0.75	***	0.21	0.49	0.33	-0.26	0.27		
기타	0.26	0.24	0.20	0.37	-0.06	0.30			
졸업 직후 취업	-2.49	***	0.23	-2.98	***	0.32	-0.49	0.30	
학교 특성									
사립학교									
학교유형 (준거 범주: 남녀 공학)									
남고									
여고									
학교계열 (준거 범주: 기타)									
공업고									
상업고									
학교소재지 (준거 범주: 면지역)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읍지역									
(상수)	-2.65	***	0.75	-4.72	***	1.19	-2.07	*	0.94
N							1554		
Log L ^a							-1170.65		
Pseudo R-Squared ^a							0.23		

a. Log L과 Pseudo R-Squared 값은 다섯 개의 imputed dataset 가운데 첫 번째 dataset에서 구한 값임.

*p<.05, **p<.01, ***p<.001 (two-tailed tests)

〈표 4〉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 대학 유형 영향요인

설명변수	Model 3 (+ 학교특성)							
	준거집단 = 미진학 혹은 취업				준거집단 = 2년제 대학 진학			
	2년제 대학 진학		4년제 대학 진학		4년제 대학 진학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가정배경								
부모 교육수준 (준거 범주: 중졸 이하)								
고졸	0.35	0.26	0.43	0.34	0.08	0.24		
2년제 대졸	0.38	0.26	0.59	0.34	0.21	0.22		
4년제 대졸 이상	1.63	**	0.57	1.76	**	0.60	0.13	0.27
월평균 가계소득 (log)	0.25		0.14	0.31	0.19	0.06	0.13	
월평균 사교육비 (log)	0.12	*	0.06	0.21	**	0.08	0.05	
양친 가족	0.22		0.24	0.13	0.28	-0.09	0.19	
자녀수	0.02		0.09	0.05	0.12	0.03	0.09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준거 범주: 고졸)								
2년제 대졸	0.51		0.37	-0.49	0.48	-1.00	*	0.42
4년제 대졸 이상	0.56		0.39	0.76	0.51	0.20		0.42
학생 특성								
여학생	-0.32		0.28	-0.59	0.35	-0.27		0.24
공부시간	-0.01		0.09	-0.02	0.10	-0.01		0.06
학업성취(내신석차)	0.01	*	0.00	0.01	**	0.00		0.00
희망교육수준 (준거 범주: 고졸)								
2년제 대졸	1.76	***	0.31	1.70	**	0.60		0.58
4년제 대졸 이상	1.75	***	0.34	3.35	***	0.57	**	0.60
고교 재학 중 징계 경험	-0.47	*	0.20	-0.92	**	0.30		0.26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빈도	-0.10	*	0.05	-0.12		0.06		0.05
전문계고 진학 이유(준거 범주: 취업 선호)								
대학 진학에 유리	0.85	*	0.37	0.66		0.48		0.33
성적 때문에	0.75	***	0.21	0.50		0.32		0.28
기타	0.26		0.25	0.20		0.38		0.31
졸업 직후 취업	-2.53	***	0.23	-3.01	***	0.32		0.30
학교 특성								
사립학교	0.42	*	0.19	0.24		0.26		0.23
학교유형 (준거 범주: 남녀 공학)								
남고	0.18		0.38	0.28		0.45		0.23
여고	-0.16		0.28	-0.10		0.37		0.28
학교계열 (준거 범주: 기타)								
공업고	0.09		0.25	-0.05		0.35		0.28
상업고	0.07		0.28	-0.20		0.31		0.24
학교소재지 (준거 범주: 먼지역)								
특별시/광역시	0.14		0.30	0.00		0.40		0.30
중소도시	0.08		0.32	-0.07		0.39		0.29
읍지역	0.20		0.34	-0.07		0.47		0.39
(상수)	-3.01	***	0.84	-4.75	***	1.23		0.99
N				1554				
Log L ^a				-1163.90				
Pseudo R-Squared ^a				0.24				

a. Log L과 Pseudo R-Squared 값은 다섯 개의 imputed dataset 가운데 첫 번째 dataset에서 구한 값임.

*p<.05, **p<.01, ***p<.001 (two-tailed tests)

IV. 결론

본 연구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교육고용패널 1~7차년도를 사용하여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한 후 6년 내에 이루어진 대학 진학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들이 진학한 대학을 2년제와 4년제로 나누어 각 유형별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구명하였다.

연구결과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 및 학교 특성을 모두 통제된 후에도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특히 4년제 대학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 특성 중에서는 학업성취 및 희망교육수준이 높으면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반면, 재학 중 징계 및 아르바이트 경험은 대학 진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문계고 입학이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으로 인식하거나 성적 때문에 전문계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전문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졸업 직후에 취업하지 못한 전문계고 졸업생들 역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배경과 학생 특성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학교 특성은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전문계고 졸업생이 진학하는 대학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 진학을 구별 짓는 요인들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과 학생 자신의 희망교육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미진학으로 남거나 취업하는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데, 그리고 미진학 혹은 취업 대신 2년제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가정배경이나 학업성취와 같은 주요 개인 특성 변수들은 2년제 대비 4년제 대학 진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진학하는 4년제 대학의 위세가 대부분 낮기 때문에 2년제 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의 매력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상당수 학생들이 뚜렷한 진로의식 때문이 아니라 대학에 보다 수월하게 진학하기 위한 통로로 전문계고 입학을 이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체 전문계고 졸업생들 가운데 14%만이 진학보다 취업을 선호해서 전문계고 진학을 선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하면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거나(18%) 성적 때문에(45%) 전문계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들 가운데 68%는 궁극적으로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따라서 전문계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대입에서의 전문계고 특별

전형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따르면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 직후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전문계고 졸업자의 상당수는 취업이 어려워 대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문계고 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내의 대학 진학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계소득, 학생의 공부시간이나 희망교육수준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여부와 진학 대학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만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에 진학한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생활, 학업성취, 그리고 학위 취득 등의 과정이 일반계고 졸업생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가정배경, 학생 특성, 그리고 학교 특성 변수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구명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경중(2008).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몰입과 학습동기, 자아개념 및 교사와의 관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제 4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강영미·유순화·윤경미(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415-438.
- 고재성(2010).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개발역량과 관련 변인.” 진로교육연구, 23(1), 1-19.
- 기영락·임성택(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부모 관계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9(1), 63-80.
- 김경근·변수용(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김기현·방하남(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사회학, 39(5), 119-151.
- 김성경(2008). “고등학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및 학교계열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6), 145-170.
- 김성식(2006). “교육기회 획득에 대한 가정배경과 학교경험의 영향.” 제 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성식·류방란(2008).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가정 배경, 학생 노력, 학교 경험의 영향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2), 31-51.
- 김안국·신동준(2009). “전문계고 졸업 여성청년의 노동시장과 학업 선택 요인.” 제 5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영희·김성봉(2011).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1), 29-55.
- 김용주·류지훈(200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견해분석.” 직업교육연구, 20(2), 35-50.
- 김택호·박제일·박영진(2008).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정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행동특성 및 학교지각의 차이 분석.” 한국교육논단, 7(1), 141-168.
- 김현주·이병훈(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 동향과 전망, 66, 138-162.
- 나승일·마상진(2005). “실업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을 판별하는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4), 61-80.
- 민지은·심혜숙(2009). “특목고 · 일반계고 · 전문계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 적응 비교.” 영유아보육연구, 15, 17-41.
- 박동열·정철영·김진구·허영준·김강호(2010). “전문계 및 일반계 고교생의 기초학습능력 수준과 영향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3), 1-23.
- 방하남·김기현(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배상훈·김효선·김국균(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가정배경 및 정서적·학습심리적 특징 분석: 전문계 및 일반계고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9(3), 149-175.

- 변수용·김경근(2010). “한국사회 고등교육 계층화의 영향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회*, 20(1), 73-102.
- 서인석(2011).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4(2), 1-25.
- 세계일보(2011.5.10). “전문계고 졸업생 70% 취업대신 진학 선택.” 10면.
- 손민중·류지성·박준·이찬영·문외술(2010).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교육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CEO Information 제766호. 삼성경제연구소.
- 안선영·이경상(2009). 중등교육단계 청소년 진로 결정요인 및 결과: 고등학교 계열선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81-99.
- 양명희(2005).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관련 심리적 특성 탐색: 자기조절학습 수준과 자아개념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35-262.
- 오현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245-265.
- 윤형한·이지연·김나라(2005). “청소년의 진로개발 영향요인 및 성과분석.” 제 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673-705.
- 이영대(2009). “중학생의 고교 진학유형별 고교 졸업 후 진로비교.” 제 5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은아(2007). “청소년의 진로관 결정요인과 학년별 변화.” *한국사회*, 8(1), 121-162.
- 장상수(2007).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계열 선택.” *한국사회학*, 42(2), 118-146.
- 채창균(2006).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제 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최동선(2008).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 계획.” 제 4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한국일보(2011.7.14). “[우리 시대의 고졸] 졸업생 71%가 대학진학 … 전문계고 살립 추지 무색.” 5면.
- 현대경제연구원(2011.7.22). “청년층 임금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경제주평*, 453호.
- Gamoran, A., & Berends, M.(1987). The effect of stratification in secondary school: Synthesis of survey and ethnographic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4), 415-435.
- Rubin, D. B. (1987). *Multiple imputation for nonresponse in surveys*. New York: John Wiley.
- Yonezawa, S., Well, A. S. & Serna, I.(2002). Choosing tracks: "Freedom of choice" in detracking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9(1), 37-67.
- Vanfoseen, B. E., Jones, J. D., & Spade, J. Z.(1987). Curriculum tracking and status maintenance. *Sociology of Education*, 60(2), 104-122.

〈부표 1〉 한국교육고용패널 전문계 고3(2004) 코호트 중 대학 진학자들이 대학에 처음 입학한 시기

입학년도	N	%
2005	1,065	82.9
2006	81	6.3
2007	41	3.2
2008	46	3.6
2009	36	2.8
2010	15	1.2
계	1,284	100.0

❖ Abstract ❖

Determinants of College Attendance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Byun, Soo-yong, Kim, Kyung-keu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college attendance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that followed 12th graders in South Korea. Results showed that parental education an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college attendance – especially four-year one – among vocational high students,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other student and school factors. Among the student factors, higher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aspirations at grade 12 were associated with the increased odds of attending college, whereas receiving disciplinary actions and working part-time during the high school were associated with the decreased odds. In addition,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vocational high schools because of their belief that attending a vocational high school would offer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for college attendance or because of their poor academic achievement and who did not obtain a job right after graduation were more likely to attend college, compared to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vocational high schools because of their preference to labor market over college and who did obtain a job, respectively. Finally, most of school factors were in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attending college. Additional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attendance, family background